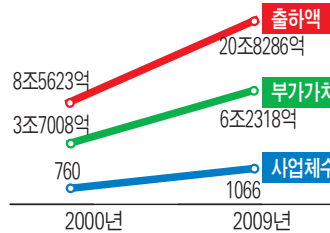


광주 제조업체 10년새 47% 증가 소비도시 오명 벗었다

광주가 '소비도시'의 오명을 벗고 '생산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지난 10년 사이 제조업체 수가 47.4% 늘었고, 출하액도 20조원대를 넘어섰다. 제조업 부가가치도 6조원대로 크게 향상됐다.

25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00년 이후 광주·전남지역 제조업 변화' 조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10인 이상 제조업체 수는 2000년 760개에서 2009년 1066개로 10년 사이 47.4%(360개) 증가했다.

■ 광주 10인 이상 제조업체 변화



車·光·금형이 선도...작년 수출 115억달러로 급증

종사자 수는 4만1873명에서 5만 6909명으로 35.9%(1만5036명) 늘었고, 출하액은 8조5632억원에서 20조8286억원으로 무려 143.2%(12조2653억원) 급증했다.

부가가치도 향상됐다. 광주지역 제조업 부가가치는 2000년 3조 7008억원에서 2009년 6조2318억원으로 2조5310억원 늘어났다.

이같은 제조업 신장세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과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광산업 등이 주도했다.

10년 사이에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체 수는 49곳에서 116곳으로 2배 이상(136.7%) 늘어났다. 종사자 수는 7131명에서 1만2225명으로(71.4%), 출하액은 1조 8587억원에서 6조6923억원으로(260.0%), 부가가치는 6754억원에서 2조3649억원으로 3배 이상(250.1%) 급증했다.

이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매출이

급증하면서 협력업체들도 동반성장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지난 1998년 5만9864대(매출 6200억원) 생산에 불과했지만 2000년 16만1002대(1조7000억원), 2006년 31만 2622대(4조9000억원), 2007년 34만5689대(5조5000억원)로 비약적인 성장을 보였다.

지난해에는 사상 첫 40만대를 돌파했고, 올해 목표는 48만3000대다.

삼성전자, 대우일렉, 오텍캐리어 등 광주지역 가진 3사의 성장도 큰 몫을 했다.

전자부품 및 전기장비 업체는 2000년 114곳에서 2009년 180곳으로 66곳(57.9%) 늘었고, 종사자 수는 1만1188명에서 1만5931명으로(42.4%), 출하액은 2조5611억원에서 6조5911억원으로(157.4%) 성장했다.

광주 특화산업인 광산업도 크게 성장했다. 광주시가 광산업 육성을 시작한 지난 1999년 1136억원이던 매출은 11년만인 지난해 2조 5400억원으로 2조원대를 훌쩍 넘어 올해 3조원 시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업체 수도 346개에서 360개로 14개사가 늘었고, 고용인원도 6870명에서 8004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광주지역 수출은 115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88억달러)보다 무려 30.4% 증가한 것으로, 자동차와 가전의 수출 신장에 힘입은 결과다.

한편 전남지역은 제조업체가 2000년 1151곳에서 2009년 1331곳으로 180곳이 늘었고, 종사자 수는 5만8703명에서 6만6805명으로, 출하액은 32조8371억원에서 83조9944억원으로 51조1573억원이 증가했다.

박정경기자 jwpark@kwangju.co.kr



'하늘의 앰블런스' 어디든 갑니다 헬기에 심장제세동기, 심근효소 측정기 등 각종 첨단 장비를 갖춰 '하늘의 앰블런스'(대당 150억원)로 불리는 응급의료 전용헬기가 운행을 시작했다. 이 헬기는 119나 보건지소, 진료소 등의 출동요청을 받으면 목포 한 국병원에서 응급의료 전문의와 간호사를 태우고 응급환자가 있는 현장에 30분 이내에 도착, 치료를 하게 된다. 의료진들이 25일 중증 환자를 이송하는 연습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민주 서울시장 후보 박영선

내달 3일 박원순과 야권 단일후보 통합경선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민주당 후보로 재선 의원인 박영선(51) 정책위의장이 선출됐다. <관련기사 3면> 이에 따라 박 정책위의장은 야권 시민사회 진영 후보인 박원순 변호사, 최규업 민주노동당 후보 등과 함께 다음달 3일로 예정된 범야권 단일 후보 선출 통합 경선을 치르게 됐다.

박 정책위의장은 25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최종 득표율 38.3%를 얻어 28.7%에 그친 천정배 최고위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추미애 의원은 21.8%, 신계륜 전 의원은 11.2%를 얻었다.

박 의원은 7982명이 참여한 당원투표에선 2949표(36.9%)를 얻어 2695표(33.8%)를 확보한 천정배 최고위원을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 추미애 의원과 신계륜 전 의원은 1417표, 921표를 각각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50%가 반영된 여론조사(23~24일 실시)에서는 39.7%를 얻은 박 의원이 추미애(25.9%), 천정배(23.6%), 신계륜(10.8%) 후보와 큰 격차를 보이며 승리했다.



서울은 짧은 서울, 얇마 서울, 감동의 서울로서 사람이 대접받는 사람특별시가 될 것"이라며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합성을 지르는 시민의 광장으로, 민주당의 이름으로 반드시 되찾아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군산대·강원대 등 5개대 구조개혁 추진 국립대에 광주교대는 지원대상 제외

군산대를 비롯한 강원대·충북대·강릉원주대·부산교대 등 5개 국립대가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로 지정돼 고강도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광주교대는 교대 및 교원대 구조개혁과 관련 교과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지난 23일 제9차 회의를 열어 38개 국립대의 운영실태를 평가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구조개혁 대상 5개대는 평가에서 '하위 15%'에 든 대학이다.

광주교대는 구조개혁 대상 하위 15%에는 들지 않았으나 총장직선제 폐지 등 개혁안을 마련하지 않아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광주교대는 향후 대학교육역량강화 사업 등 국가 지원 사업 신청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교과부와 구조개혁위는 '경영부실 사업대' 관정을 위한 실태조사 대상으로 대불대·원광대·전북과학대학 등 12개교를 선정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문화나무 상생광장' 제8탄 '이 시대 우리의 도시와 건축'

"우리가 지향해야 할 도시의 모습은
덜 미학적이고 더 윤리적인 건축"

- 승효상 2011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
- 29일(목요일) 오후 4시 빛고을시민문화관
- 문의: 062-670-7423, 062-220-0651

光州日報 · 광주문화재단



기독교명문대학!
진리로 미래를 여는 지성인의 요람

수시모집 원서접수
2011. 9. 14(수) ~ 10. 7(금)

합격자 전원 입학금 면제 장학혜택

입학 문의 대학원 062) 605-1114

광신대학교

우암학원 창학61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영국 최고의 명문 NLCS, 고품격 영어교육의 서막을 엽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이 160년 전통의 명문사학 NLCS Jeju 개교(9월 26일)로 그 원대한 꿈을 펼칩니다.

개교식: 2011.09.30 Fri 14:00 | 제주영어교육도시 내(서귀포시 대정읍 구역리)

영어교육도시 명칭 공모 영어교육도시에 어울리는 새 이름을 제안해 주십시오.

- 공모 개요
 - 주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공모 기간: 2011년 9월 28일 ~ 10월 17일 18:00까지 (20일 간)
 - 공모 자격: 전 국민과 국내외 거주 외국인, 전문가
 - 수상자 및 상금
 - 수상 인원: 4명(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 장려상 2명)
 - 상금
 - 최우수상: 300만원
 - 우수상: 200만원
 - 장려상: 100만원
 - 수상작 발표: 2011년 10월 21일(예정),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본인 부담
- 공모 방법과 선정 절차
 - 공모 방법
 - 브랜드 명과 슬로건은 패키지로 출품하여야 함
 - 1인당 브랜드 명과 슬로건 최대 3건까지 응모 가능(공동응모 가능)
 - 공모 절차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홈페이지(www.jdccenter.com) 영어교육도시 공모전 페이지에서 공모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접수(since840505@jdccenter.com)
 - * 우편 접수할 경우 접수 마감일 소인 분까지 인정
 - 평가
 - 국내 전문가, 관계기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공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
 - 문의처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교육도시처 (Tel. 064-797-5592)